



2016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 수상작품집

자유, 독립, 이승만 그리고 詩

 자유경제원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차 례

심 사 평	제1회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 심사평	복거일	5
대 상	중앙청	오종택	7
최우수상	옥중음(獄中吟)	윤인수	9
우 수 상	거인의 발자국	곽장원	10
	나뭇가지에 꽃을 달아준 사내	김은철	12
	그대 있을때	박진옥	14
	7월 19일의 시간	서주형	15
입 선	진실	김춘수	18
	분지에 서서	김기영	19
	우남을 생각하다	김승예	21
	태극기	김현신	22
	기도	이한나	23
	너를 부르다	정경봉	24
	나의 기도	박광성	25

초 대 작

아르고스의 눈	김유빈	28
다시 일어서다	양은진	29
초인이 선물한 자유	최성환	30
맨발	황인복	33
기우제를 지내는 사내	권조은	34
꽃잎에 적어보내는 마음	남윤영	35
버려진 선구자	박원식	37
이승만을 그리며	이지성	38
화진포(花津浦)	정성수	40
해피 벨스데이 TO 대한민국	최영철	41
모순	김성준	44
이불	박수호	46
자유의 숨결 - 우남께 올리는 헌시	신승민	47
우남	최병규	49
우리는 모두 우남이었다	하재운	50
역사 없는 민족 없고 당신 없는 역사 없었다고	김성민	52
거목	최병규	54
날개의 남상	추가람	55

시대의 거인
건국대통령 이승만
그의 위대한 삶과 업적을
기리며...

2016년 3월 어느 멋진 봄날

자유경제원에서

| 심사평 |

제 1회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 심사평

복 거 일

어떤 인물을 기린다는 명시적 목적을 지닌 시는, 그 인물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그가 위대하다는 사실 때문에, 쓰기 어렵다. 자칫하면, 송덕비에 새겨지는 비문처럼 되기 쉽다.

이승만 대통령이 위대한 인물이었다고 그의 긴 삶이 극적이었으며 그의 업적과 인품이 오랫동안 부당한 평가를 받아 왔다는 사실이 겹쳐서, 그를 추모하는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쩔 수 없이 감정이 격하게 된다. 그렇게 끓어 오르는 감정을 절제해서 문학 작품으로 다듬어내기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 자연히, 추모의 감정을 비교적 잘 절제한 작품들이 시의 특질을 잘 지닌 작품들이 되었다.

이런 공모전에서 시재를 찾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 터이다. 우남를 추모하는 사람들의 잔치로 여기는 편이 온당할 것이다.

대상을 받은 오종택씨는 지난 번 자유주의를 주제로 한 응모전에서도 대상을 차지했다. 상당한 시재가 있음을 확인해 준 셈이다. 정진하기를 기대한다.

이번엔 특이하게도, 한시가 최우수상에 뽑혔다. 엄격한 제약이 있는 정형시인 한시로 쓰면서 겪게 되는 긴 모색이 작품들의 품격을 높여준 듯하다.

시를 쓴다는 것은 좋은 시를 얻는 것을 떠나서 일단 고양된 경험이다. 자신의 일상적 삶에 문득 서정적 빛깔을 입히는 일이다. 참여하신 분들 모두에게 축하 말씀을 드린다.

2016

제1회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
수상작품

| 대 상 | 복거일 상

중 앙 청

오 종 택

잠시 우리가 쓰지 못한 역사
매몰차게 나부끼던 어색한 국기

박사가 가져다 준 화색의 민주주의가
그 회색의 장막을 걷어본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제헌 국회 개회와 헌법 공포
수난의 석조 건물에서
그제야 우리 손으로 역사를 쓴다

여기는 개피탈 홀
박사가 가져다 준 자유와 양심의 금문자(金文字)
마르지 않는 자유와 양심은
잉크가 되어 책으로 서재에 남았다

붉은 깃발과 납 총탄을
온몸으로 받아도 단단히 자유의 역사를 쓰던
5층의 낡은 석조 건물은

잠깐의 오명을 만들던 시절을 향한 멸시는 못이겨
그 단단한 펜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몸을 맡겨
국민의 손으로 혈린다

하얀 종이 같은 폐허 위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단단히 쓰던
석조 같은 우남은

잠깐의 오명을 만들던 시절을 향한 멸시를 못이겨
그 단단한 펜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몸을 맡겨
국민의 손으로 혈려간다

모든걸 허물어
섬으로 보내고
우리는 더 이상 역사를 쓸
석조(石槽)의 펜이 없다

| 최우수상 |

獄 中 吟
옥 중 음

七言古詩

윤인수

昏主庸官掃寶藏
혼 주 용 관 소 보 장

어리석은 임금, 못난 신하는 나라재산 탕진하고

梟隣狼邦撤界疆
효 린 랑 방 철 계 강

이리때, 울빼미같은 이웃나라는 나라경계 허무는데

無君共和已無望
무 군 공 화 이 무 망

임금없는 공화세상 이미 바랄 수 없으니

有牢心懷乃惆愴
유 료 심 회 내 추 창

감옥속 이내 마음 애달프구나

| 우수상 |

거인의 발자국

곽 장 원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예전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주 어렸을 땐
그러니까 꽃 피지 못해 바람 찬 시절엔

슈퍼에서 캔디를 팔지 않았고
골목에서 울음을 멈추지 않았고
극장에서 자유를 논하지 않았고
학교에서 미래를 배우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독립 두 글자와 함께
우남 선생을 맞이했대요

따스함에 봄눈 녹듯
모두가 뛰어나와 얼씨구나!
자유를 부르짖으며
손을 맞잡으며
민족의 영광을 노래했대요

거인의 한 걸음
최초의 불나방은 조국의 혼을 지켰고
움푹 팬 발자국은 조상의 눈물 담아

거대한 호수가 되고
우리의 뿌리가 되었대요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대한의 꽃은 새로이 피었대요
내가 보는 무궁화가
우리가 보는 무궁화가

그래서 지금 난 자유래요
우리는 자유래요

| 우수상 |

나무 가지에 꽃을 달아준 사내

김 은 철

동구 밖 느티나무에
젖먹이 아이를 등에 업은
몸집이 아주 작은 여인.

사랑에 목 마른 화가가
그려낸 도화지의 유화처럼
아이는 등에 업혀 칭얼거렸고
나지막한 소리로 봄을 노래하고 있었지
그 여자는,

보리 고개를 겨우 넘긴
봄 아직 멀은 날,

겨울을 견뎌낸 나뭇가지가 한탄처럼 내려앉고
싸안히 돌아선 밤으로
별 하나 떠올랐다.

여인은 별을 향해 걸어갔고
맞은편에서는 땀이 범벅된 사내가 걸어왔고
그 무렵 아이는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밝았음을 기억했다.

동지선달 매운바람 흔들어 가고
이 땅에 보드라운 봄바람이 불어왔다.
이파리를 달지 않은 경제 나뭇가지,
끝내 소망의 꽃을 달아준 사내,

중절모를 쓰고
이 들녘에 가난을 몰아내고
꽃을 달아준 그 사내-

아이는 밤 하늘의
별 인줄 알고 살았다.

| 우수상 |

그대 있을때

박진욱

찌렁찌렁
산이 웃는다
자유와 경제를 아름드리 품은
그 산 정수리 차디찬 눈바람이 훑고 지나갈 때
힘없이 누워있던 조국의
지난한 가슴 틈과 틈 사이
여러 갈래 유리된 미로에서는
얼마나 단내가 나는 피가 타고 있었을까

몽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목구멍 아래 눌러있던 울음이 꿈틀거릴 때
빛나는 햇살이 분수처럼 쏟아지는
이 땅 위에 던져진 언어
맹아의 힘으로 박차고 나왔지
우리는 그렇게 응집된 소리로 나왔지

돌아놓지 못하는 나의 친구들아
그늘에 묶인 바람 소리들아
파란의 시절을 해빙시킬 수 있는
찌렁찌렁
그의 웃음소리 들리지 않니

산이 웃고 있다

| 우수상 |

7월 19일의 시간

서 주 형

하늘이 무너지도록 마른 비가 내리고
새해 상해에 걸었던
나이 든 태극기의 내음이 일면,
송재와 몽양은 단풍을 피웠다.

된장국에 시래기처럼 어루어지던
걸쭉한 이야기들.
몽근하게 피어오르는 연기.
그 내음이 침처럼 쓰렸다.

바람이 창을 두드리면
워싱턴의 딱딱한 도로를 지나
십수년 손때 묻은
낡은 타자기의 소리가 났다

밤을 한줌 한줌 뇌까리며
남은 것 하나 없이
문자로 비명을 토해내던 그 시간의...

적막과 역년의 시간
물바다 같은
무덤같은 시간
결로結露한 집의 기둥을 올리는

긴 건축의 시간

땅땀기 밑에
노을 그림자 흩어지듯
녹아버린 스며든
거름같은 시간

이제 구름은 가벼워지고
햇살은 늘어져 얇아지고
날개는 가볍게 하늘로
누구든 날아오르는

우리 모두가 원하던
시간이 오고,
바다의 갈매 울음은
어제와 같은데

낮은 타자기
프란체스카
노송이 끌어안아 소산한
나뭇가지 같은
이, 내 손...

그래

내일이면 내일이면

시계 초침소리 진한
지금도
찾을 수 있는 집
그 고향 집

이제는 그리워 가련다.

물 건너 고향으로

내 평온의 쉼터였고

내 기억 속 환한 웃음이었던

친우들과의 이야기가

파란 산바람으로 꿈이 되어 밀리던 곳

그리워 찾아가련다

오마니 계시는 평산 집

하늘 너머 고향으로

*단풍 : 강점기 시절의 담배

| 입 선 |

진 실

김 춘 수

이승만의 作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김일성의 作

헌법 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분지에 서서

김기영

영리한 거인 프로메테우스는 불안하게 희번덕거리며 신(神)의 물건 하나를 훔쳤다. '먼저 생각하는 자'로 불린 프로메테우스가 훔친 것은 암브로시아도 넥타르도 아니었다.

제우스의 번개에서 부서져 나온 불의 파편은 거인의 손아귀에서 타올랐다. 커다란 주먹은 세상을 밝히는 햇불처럼 활활 타올랐다.

인간은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털도 없이 앙상하게 헐벗은 몸을 웅송그리며 올림포스 정상을 향해 기도했다. 굵고 굽주린 자들은 자발적인 노예일 수밖에 없고, 잔인한 신은 그 굴종의 경배를 즐겼다.

거인이 노예들에게 불씨를 주고 갔다. 제우스는 진노했고, 프로메테우스는 쇠사슬에 묶여 독수리에게 간이 쪼였다.

제우스는 궁금했지만 프로메테우스는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다. 왜 불씨였는지, 금은보화도 아니고 왜 불씨를 훔쳤는지.

제우스는 곧 깨달았다. 지상에서 더 이상 신을 향한 찬가가 들리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아무도 신을 향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걸. 노예였던 인간은 불을 통해 자유를 획득했다.

불로 자연을 극복했고, 추위를 이겼고, 날것을 구웠다.
춤지도 굶주리지도 않는 자는 이제 자유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이승만은 ‘먼저 생각하는 자’로 불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굴에 개똥이 날아왔고, 비난하는 자의 침이 튀었고, 증오하는 자의 모욕을 뒤집어썼다. 프로메테우스처럼 쇠사슬에 묶여야 했다.

그는 남들보다 먼저 생각했기에 우리가 취해야 할 불씨가 무엇인지 고민했다. 그것은 ‘자유’였다.
노예적 평등을 택하는 것은 노예들이나 하는 짓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노예들에게 안락함이란 약속될 수 없는 것이었다.

자유는 원래 신의 영역이다. 신만이 자유로울 수 있다.
자유를 택하고, 자유에 책임을 지고, 결과적 차등 앞에 겸손할 수 있게 되자 지상에는 신전이 사라졌다.

대신 우리가 우뚝 서 있다.
우리가 서 있는 거대한 분지(盆地)가 실은 우남의 움푹한 발자국임을 거인이 아닌 자들은 알지 못한다.

| 입 선 |

우남을 생각하다

김 승 예

한 번도 그를 깊이 들여다 본 적 없었다
우리의 교과서 속에서 그의 흔적은 열었고
그는 나쁜 사람이었다

한 번이라도 그를 가여이 여긴 적 있었나
시대를 향해 내선 그의 한숨은
동족상잔에 가족을 잃은 이들의 응어리만큼이나 깊었고
흘린 눈물은
황무한 땅에 홀로 남겨진 자의 고독보다 진했으리라

완전한 한반도,
이 조국의 항구에도 자유의 메이플라워호가 닻 내리길 꿈꾸었던 사나이...
이제,
무지의 세월을 견디어낸 책장(冊張)의 먼지를 털고
오해로 얼룩진 거울을 닦아내고
선명히 그의 얼굴을 바라봐야 할 때.

| 입 선 |

태극기

김 현 신

나는 알고있소
내가 여전히 펄럭일 수 있는 이유
그대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란 것을
나는 알고있소

고맙소
세상이 모르고 그대만 알았던 그 사실
멀리 바다 건너 홀로 외쳐주어
고맙소

용서하시오
거센 바람이 그대 흔들 때
나 역시 펄럭였던 그 순간을
용서하시오

이제는 기억하오
세상이 그대 모른다해도
나는 그대 손에 붙들리어
영원히 펄럭이리라
그대, 우нам을 우린 기억하오...

| 입 선 |

기 도

이 한 나

노인의 기도는
마지막까지
그렇게도 완고하였다

생지옥에서 만난
당신의 창조주(創造主)에게
민족의 구원주(救援主)가 되어달라고
무릎 꿇은 그 날 이후로

대양을 넘어 간 이국에서
대한의 독립을 외치며
험난하고 외로운 길 위에서
동지의 냉소(冷笑)를 사며

대양을 넘어 돌아온 조국에서
대한의 반공을 외치며
민주주의의 꽃길 위에서
모두의 오명(汚名)을 사며

모두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혁명인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주여 우리 민족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게 하소서

노인의 기도는
마지막까지
그렇게도 굳건하였다

| 입 선 |

너를 부르다

정 경 봉

돌아온 고국산천
가을꽃 피어나던 골짜기 사이사이로
바람의 경전을 읊고 염원의 비석을 세워
너로 하여금 읽고 외도록 했었지
너는 점자를 더듬는 맹인처럼 더디게 나아가고 있었고
그 모습 바라보는 내 얼굴엔
흐뭇한 미소가 떠올랐었지

그 염원, 민주주의를 읽히기엔 너무 일렀던 탓일까
이렇게 끝이 올 줄은 몰랐어
총성이 울리고,
경무대 창문 너머로 나를 부르는 군중의 성난 목소리
눈을 감으면 고향집 담 너머 피어나던 들꽃들이 떠올랐지만
총부리에서 꽃을 피워낼 수는 없었어
오독의 역사는 숙명처럼 희생을 요구하는 법이니까

그렇게 다시 돌아온 이국의 섬
이곳도 바람 불고 파도가 치는데
바람의 이름으로 너를 불러도
너는 내 호명을 듣지 못하고
간절한 그리움만 해협을 건너는구나
아, 간절한 네 얼굴만 눈가에 어리는구나
너, 나의 조국이며,
대한민국이며.

| 입 선 |

나의 기도

박 광 성

창문 너머
제비도
자유롭게 날아가는데

이 땅의
어린 백성들은
이러하옵니까

희망없는
이땅에
축복이 있기를

육신이 뜯기고
수족에 가시 박혀도
정신은 귀족인지라

이역만리
미친 노인이라
들을지언정

어린 백성들을
자유롭게하고자
가시밭길을 걷습니다

오 하나님
불상한 나의 조국을
구원해주소서

하나님
늙은 이 몸을
용서해주소서

하나님께
조국과 백성을
맡깁니다.

종에 명예를
메지 않도록
해주소서

2016

제1회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

초대작

| 초대작 |

아르고스의 눈

김 유 빈

고향 떠난 두 발은
신 벗을 틈 없이 분주하다.
두려움을 모르는 입은
일본의 가면을 뜯어 제낀다.
죽음을 이긴 희망은
감옥 속에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를 심는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가란
평생을 함께 하자던 약속 잊고 떠나는 서방과
자신이 머물던 자궁 찢으려 달려드는 아이 뿐이니
아닌 날 밤 홀연히 눈 감은 별 하나인들
그 심정 다 헤아릴까

죽은 어미의 시체 위에 올라앉아
어미 없이 세상에 났다 우기는
치기어린 아이의 외침에
코웃음으로 응수하면서도
나는 어느새 모골이 송연해짐을 느낀다.

죽어서도 눈 감지 못한
충직한 아르고스의 혼이여
나는 오늘도 날아가는 새들의 날개 아래에서 느껴지는 당신의 눈길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황급히 눈을 내리칸다.

| 초대작 |

다시 일어서다

양 은 진

누가 보아도 굳건한 뿌리이라
누가 보아도 자유로운 산들바람이라
누가 보아도 올바른 저울이라

이를 가지고
모두가
열심히 쌓아왔건만

거센 땅의 흔들림에
허물없이 무너져
마치 그곳에 있었냐는 듯 묻는
땅을 보고 안타까워 하니

누군가
시치미 떴는 땅에
다시 기둥을 박으니

그로 인해
모두가
다시 일어서다

초인이 선물한 자유

최 성 환

광야 없던 시절
큰 언덕 큰 집에서
상의 왼쪽 마크를
자랑스럽게 여긴 시인이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예견해

이미 죽은 시인은 나에게
‘그 초인이 우남이었습니다.’
그는 놀라서 방언이 터지길
‘가가 가가?’

반세기 먼저 받고
강산 한 번 더 받고
얼마 전까지 다녔던 교실에서
그 초인은 대접받지 못했다.
나는 독재자로 많이 들었다.

같은 시기
위도 약 38도 이북에
그저 작은 스탈린 주제에
민족의 영도자로
초인보다 높은 등급인 신처럼 받아들여졌다.

신이 되어 신들렸는지 신나게
학살하고 숙청하고 말아먹어도

빨간 이들에게는 민족의 영웅이자
세계 초강대국 미국에 대항하는 행동하는 양심이며
정작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실상을 알아보려고 자료를 뒤지든지
하기는커녕 인민이 굶어 디지든지
진심 월남처럼 패망 안 된 게 기적이다.

나 같은 범인에게는 기적이지만
그 같은 초인에게는 바둑의 묘수
농약 묻은 사과 껍질과 같은 자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초강대국
그 초강대국을 다룬 초인

한미상호방위조약
미국의 무상 원조
이건 어디 개한테 줘버렸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자세로 빌고 또 빌은 줄 알았는데
반공포로 석방으로 깡판 친 거란다.

임진년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명에 원군을 요청한 것을
경인년 그가 서울을 탈출하고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그를 무능한 사람이라
그러나 그는 최소한
장군이나 의병장을 처형하는 졸보는 아니었다.

일제시기 흔했던 지주 그리고 소작농 그리고 소작쟁의
요즘에는 보기 힘든 볼 수 없는 이 구도

우남 선생의 농지 개혁은
정녕 600여 년 전 우재의 과전법보다 무엇이 못하단 말인가?
‘아 이게 내 땅이다. 내 땅이니까 내가 지켜야지.’
800여 년 전 김윤후가 처인성 전투에서 적장 살리타이를 죽일 때
노비문서를 불태워 그들 스스로가 싸우게 한 것이 연상되지 않니?

삼시 세 끼를 걱정하던 시절
국민들이 공산주의에 위협을 느끼지 못하던 시절
대통령과 왕의 구분이 익숙하지 않은 갓 봉건사회에서 벗어난 시절
문맹률이 높아 지금은 흔한 초등학교 졸업도 힘든 시절

자유란?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멋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지킬 것이 있고
무언가를 위해 싸울 수 있고
규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게 자유다.

누구는 그런다.
우사와 우성이 그를 떠난 것은 그의 인성 때문이라고
누구는 그런다.
자기 사람 관리 못해서 3월 15일에 그 사단이 났다고

나는 이렇다.
과는 인정하되 공과 크기를 비교한다.
그의 과를 건국이라는 공보다 크다고 누가 할 수 있는가?

| 초대작 |

맨발

황인복

共產의 거칠고 모진 풍파를 견뎌내고
깎고 깎여서 조각된 부르튼 맨발
그 위대함이 어찌 충무공에 미치지 않을 터냐

悲鳴마저 삼켜버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피투성이인 맨발을 휘달려 찬란한 휘광을 몰고 오면
그 자취를 따르면 비로소 당도할 터이니

千古의 후에 흙으로 되돌아가 비료로서
국가의 중심에 강하게 뿌리 내리고
화알짝 만개한 무궁화에 바칠 지어니

民主의 큰 별이 졌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말라
비록 육신은 깎여서 흙으로 돌아갔을지언정
어찌 맨발의 수고스러움까지 잊을 쏘냐

現在하는 국가는 그의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니
이승만, 그가 자유민주의 선구자이듯
자유민주 국가 대한민국 그의 자랑일지어니

| 초대작 |

기우제를 지내는 사내

권 조 은

황무지 한 가운데 홀로 서서
마른 바람 맞아가며 옆드려 있는 우리의 남자여

그는 왜 옆드려 있는가
이 땅에 단비를 내려주십사 두 손 모아 빌고 있네

아, 우리의 남자여
오랜 공부로 무릎이 닳고 세상 풍파에 기력이 쇠하여
당신 몸 지탱도 어렵기만 할 터인데

죽어가는 땅 한번 살려보고자
죽어서도 끊지 못할 정신력으로 또 한 번 발 벗고 나선
우리의 우남이여

비단신발 신은 무리들에 눌러 희망을 잊어버린 우리에게는
고독한 싸움 나서 준 그대가 바로 단비요

우리가 겪은 아픔을 물려받을 우리의 후대에게는
그 아픔 덜어 줄 그대가 바로 명약이네

| 초대작 |

꽃잎에 적어 보내는 마음

남 윤 영

나는 엄마입니다.
대한민국 땅, 그 위에서
내리쬐는 자유, 그 햇살 받으며
이 봄을 살아가는

나는 압니다.
우리 엄마의 엄마가 살았던
가슴 졸이며 언제 깨져버릴지 모르던
살얼음판 같던 그 땅에

눈부신 자유의 햇살을
빛나는 대한민국을
갓추어놓은 당신,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이심을

자유 향한 의지 굽히지 않고
자유 향한 신념으로 평생을 바친
음침하던 이 땅에
봄 같은 자유의 빛 켜켜이 쌓이게 한

이제 나는 하렵니다.
그의 두 눈을 마주하고
그의 두 손을 마주잡고
따스한 햇살에 피어난 자유의 꽃
지켜내겠다는.

햇살 가득한 이 봄날
꽃잎마다 내마음 적어 보내는
나는 엄마입니다.

| 초대작 |

버려진 선구자

박 원 식

붉은 끈 매어 버려진 님

이국 섬가 못 모아 돌아가고파

기어이,

기어이 돌아가

천년사랑 대한 품에 안기려던 님

거친 터 여명 먼 하늘에

밝은 눈 굳센 혼 깃발 드세워

화마 쫓긴 여린 대한 감싸올린 님

흔백일랑 말등 태워 달려오실제

외면 아픔 늦마중 풍운으로 날리우며

내 백성 자랑타 만세 부를

영웅아,

대한 선각자여!

| 초대작 |

이승만을 그리며

이 지 성

태평양의 쪽빛 하늘을 촘촘히 엮어 올리는
올리브향이 짙다
동해에서 밀려오는 푸른 물결이
태평양을 건너 여기까지 밀려온다

조국이 보이는
언덕 위의 하얀 교회로 달려가자
갈매기는 진주만을 낮게 날며 그리움에 끼룩거리고
무궁화 꽃 닮은 부용꽃으로
울타리 치며
모국에서 모종해온 채소들은
파도 소리에 잠 못 이루고

아침의 붉은 해가 수평선으로 솟아오르면
나래를 펴고 하늘에 올려 퍼지는 코리아 환타지
그래서 이 거리에는 언제나
하늘과 어깨동무하고 달려오는 애국가로 넘친다

대한에서 태평양건너 하와이까지
태평양의 맑은 바람 밀어 올리며
동쪽하늘 바라보며 구성지게 불렀던 아리랑을
더 큰 소리로 담아내는
가로수들 숨이 차다
이승만 박사가 걸어오네
붉게 노을 진 와이키키 해변으로
나도 걸어간다
애국가 선율에 실려

| 초대작 |

화진포花津浦

정 성 수

부슬부슬 내리는 화진포 석호瀍湖에 곶은 낚시 드리우고 ‘생각하는 사람’이 된 남자. 어떤 희망을 들여다보고 있는지 무슨 기쁨을 생각하는지 호수는 말이 없고 하염없이 내리는 빗물이 남자의 얼굴에 주르르 흘러내린다. 걸어 온 발자국마다 깊이 팬 주름과 두 눈에서 배어나온 진한 눈물은 남자의 이력이다.

거친 별판에 홀로 선 소나무 같은 시대의 선구자.

남자는 해방된 조국을 위해 한 몸을 불사른 투쟁 끝에 현대국가의 창업을 이룩한 세계적 경제가經世家이자 나라와 백성을 이끌고 가는 리더였다. 색깔논쟁과 갈등은 국익이 찢기고 찢어져 처참한 주검이 될 뿐이라고 국민 모두 대동단결하여 세계만방에 삼천리금수강산을 노래해야 한다. 고 두 주먹 높이 들었다.

모래는 뭉치면 벽돌이 되고 벽돌은 깨지면 모래가 된다.

남자의 외침에 따라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분단의 역사를 청산하고 통일을 이뤄 건국이념을 완성하는 것이다. 석호瀍湖에 드리운 곶은 낚시의 피맺힌 절규 ‘우리 민족이 굳세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도록 가슴에 담는 화진포花津浦.

그리운이여! 다시 봄비처럼 오시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우남 이승만이여!

| 초대작 |

해피 벌스데이 TO 대한민국

최영철

갓서른 젊음이 합중국 대통령을 만나
바다건너 홀로서기 순한꿈을 펼친 곳
'안심하라 조국이여 우리가 있다'
남은이들보다 더 태문은 땅을 걱정하는
떠나온 이들
미국 동부지역 동포들이 탄식했다
뉴욕에서 뉴저지에서
풍찬노숙 단풍잎 가을비에 젖는
빌라델비아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비에 젖는다
붉은 장미 몇 송이와
천당의 노리개 바람개비도.
삼일만세 함성에 첫국민회의를 열고
독립선언 핏대 선 목, 행차나발 찌르르. 필라델피아
조선왕족의 후예로 태어나
백성이 하늘! 외치다 사형수 된
스물 다섯 푸른 구름 한성감옥에 흠어질 때
삼신할미 조화로다
태산아 우리 칠대독자!

그날도 교회에 강연 돈벌이 갔다가
청천벽력! 전보받고 달려갔지만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세'
통곡으로 지낸 밤 그날의 한 줄 일기
'그저 슬프다'

목젖만 떨어 삼천만의 성대모사
'음~ 뭉치면 살고 헤치면 죽습네다'
JOIN, OR DIE.
내가 원조, 벤자민 프랭클린

저승가는 길에도 여비가 드는 법
가난한 죄로 半火葬도 못한 육신
벙골만으로 망명하는 바라나시 갠지스강
마하트마, 인도의 위대한 영혼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

몬테네그로의 어머니는 오월의 밝은 새벽
음악의 아버지는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깨물면 다 아픈 손가락이 스무개.
마리아 테레지아의 기쁨과 슬픔이 보이는 곳
여름에도 스키 타는 알프스의 서늘한 품
인스부르크는 막시밀리안.
오리무중 화약내 걸힌 발칸반도
유고슬라비아연방은 티토.
지구촌 동네방네 건국의 아버지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누구?

‘창피해 내가 창피해’

사일구 학생들 문병을 마친 후

발표한 하야성명

우남 이승만, 빈털터리 맨발의 역마살

방갈로 지붕을 두들기는 허리케인 빗소리로

타이완 총통 장제스의 위로에 답했다

‘나는 위로받을 필요가 없다

불의에 쫓겨난 백만학도가 있고

정신이 살아있는 국민이 있으니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 초대작 |

모 순

김 성 준

독액 같은 침을 튀기며 누구는 욕한다.
저놈은 독재자다!
독재자로 불린 사람은 시민의 피를 흘리게 한 적이 없다.

짐승 같은 이를 드러내며 누구는 노려본다.
저놈은 민족을 팔아먹었다!
매국노라 불린 사람은 하와이의 허름한 이발소에서 이발비 조차 아껴야 했다.
그렇게 아낀 돈으로 자신이 팔았다고 하는 조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했다.

입으로만 애국과 나라의 미래를 조잘거리는 사람들은 말한다.
한국전은 저 늙은이가 계획한 것이라고.
막상 이북 반군이 내려올 때 혼자 비겁하게 도망쳤다고.
비겁하다는 그 사람은 지도에 선을 그어 독도를 지켰고
최강대국에 주눅 들지 않고 포로를 석방했다.

이 모순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무언가가 그 자체로 모순된 게 아닌데 모순된 평가를 받는다면
그것은 평가를 내리는 쪽이 모순된 탓이다.

모순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음을 말한다.
그를 모순된 존재로 만든 두 갈래 중 한 쪽은

반드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지금의 우리는 자유와 풍요라는 곡식으로 살찌우면서도

그 씨앗을 심고 피를 뿌려 키워낸 자에 대해서는 외면한다.

마치 식탁 위에서 농부와 어부의 노고에 대해 아무도 감사하지 않는 것처럼.

나는 거짓말쟁이들을 비웃는다.

우국이라는 단 하나의 성질만 지녔던 사람을

모순되게 환칠해 놓은 그들의 위선이 광대극처럼 우스꽝스럽다.

| 초대작 |

이 불

박 수 호

그의 행보는 위인전

또한 대한민국 사용방법서

그의 먼지같은 씨앗은

먼훅날의 새빨간 열매들

아아 거인,그대의

발자취는 우리를 감쌀 만큼 크구려

| 초대작 |

자유의 숨결-우남(霧南)께 올리는 헌시

신 승 민

열강과 주적(主敵)의 창검 빗발처럼 몰아치고
전진(戰塵)이 휘감아 돌던 적빈한 강토(疆土)에
지사(志士)의 헌신과 위국(爲國)의 통찰력으로
겨레의 희생과 개국(開國)을 일으킨 몸 계셨으니
벼랑 끝에서 외로이 고동치던 불굴의 녀이여
당파와 쇠국으로 얼룩진 한말의 궁핍을 딛고
불철주야 독립외교로 광복의 기치를 드높이신
그대는 혈기 어린 고국(故國)의 맥박이어라
홀로 모진 칼산을 딛고 고원(高原)에 올라서서
목청 끊어 호곡(號哭)하는 그대의 대의(大義)가

곤고한 유허(遺墟) 위에 섬광으로 흩뿌려지고
유장한 아리수 부서지는 물결 속에 흘러갔나니
청죽(靑竹) 같은 나라 걱정에 백발성성한 염려는
적화(赤化)의 총칼을 살라 먹는 우국충정의 빛이요
지고한 자유 민주의 열망과 헌법 수호의 신념은
조국 산하에 푸르게 움트는 번영의 기적이로다
상처 입은 한반도에 그대의 혼백(魂魄)이 서려
정의롭고 풍요로운 자유경제 이 땅에 열리고
건실한 기업정신 우뚝 솟아 산물을 일궈냈으니
새벽바람에 달궈지는 응비(雄飛)의 심장이자
타오르는 자유의 숨결 오로지 우남(霧南)이시어라

| 초대작 |

우 남

최 병 규

남으로 가자고 남으로 향한 기도
그리하여 또 제비 불러 오면
그리하면 또 봄이 몰려 올거라고
나는 한 걸음도 이국 땅을 떼지 못하고
천리 고향에 피는 굴뚝의 연기마저 그리노라
찬연한 저 연기 따라가면 엄마 목소리 들리겠지
예서 난 한 걸음도 더 갈 수가 없네
남으로 가자고 남으로 향해 부르는 노래
엄마를 졸라 봄이 오는 길목으로 달려 나가자고
봄비 불러오는 연기 오르면 제비가 또 온다했지
이윽고 터져 나오는 만세소리에 놀란 땅의 부활
봄이 오려는지 해동비 내리더니 꽃바람이 분다
그리운 남쪽에서 가물가물 올라오는 봄소리
온화한 푸른 혈맥 감도는 훈풍의 엄마소리
태평양을 건너 기류에 실려오는 자유의 목소리
칼날을 뚫고 해양으로 낙조지는 섬소리
꽃을 따라 물길 따라 올라오는 남풍의 몸짓
봄 물결에 침몰하는 저 사나운 고래떼 죽고
남을 향해 출렁이며 봄비가 제국을 침략한다
제비날개 죽지위에 자유 싣고 광명의 날이 온다
남으로 향한 기도에 그리움이 솟는 절규
남으로 부는 바람에 한반도에 피는 해방
기어코 엄마를 부르듯 봄을 우지짓는 저 자유의 아우성

우리는 모두 우남이었다

하 재 윤

<Korea>. 전 날 쏟아진 비에 긴장을 풀어버린 진흙의 얼굴에는 낙서가 생겼다. 우리는 우남이 진흙의 이름을 지어주는 줄 알았다. <K>를 쓸 때만 해도 우리는 <아>를 쓰려는 그의 손가락이 실수로 미끄러진 줄 알았다. 간지럼을 이기지 못한 진흙이 그만 떨어버린 줄 알았다. 우남은 진흙을 가리키며 코리아라 말했다. 왜 그렇게 발음되는지 알 수는 없었다. 우리는 물었다. 이 땅 주인의 이름이냐. 우리가 서있던 밭은 큼직한 바위가 더러 있어 오래 전부터 보부상들이 쉬어가던 곳이었고, 두 해 전에는 소작농들의 부인과 배꼽을 맞추던 마름 최 가의 것이었으며, 지금은 비가 온 다음 날 동네 아이들이 진흙을 캐러오는 곳이었다. 바위에 기대던 물미장들이 하나 둘 사라지고, 군중들 사이에 감싸진 최 가가 낮에 불알이 털린 이후로는 줄곧 주인이 없었다. 우남은 팔을 넓게 벌렸다. 너, 나, 우리. 그는 주위의 모든 것이 코리아라고 말했다. 비가 온 다음 날이면 우남은 정해진 공식처럼 그 밭으로 나왔다. 그는 두꺼비 떼 속에서 끈질기에 우는 청개구리처럼 단어를 적었다. 새로운 태양을 본 조선인 헌병의 군화발에도 우남은 꺾이지 않았다. 그의 심장은 진흙 속에 묻혀있는 것 같았다. 아이들은 더 이상 밭에 찾아오지 않았다. 비가 내리고 땅이 굳을 때마다 마을의 사람들은 조금씩 줄어갔다. 진흙을 퍼가던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돌아오지 못했다. 밭에 찾아오는 손님은 이제 나와 우남 밖에 없었다. 더 이상 우리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한 구석이 되어 버렸다. 어느 날, 우남은 홀연히 나의 곁을 떠났다. 마치 태초부터 존재

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는 한 마디의 인사도 남기지 않았다. 우남이 떠나간 발은 계속 주인이 바뀌어갔다. 천황의 통곡 소리보다 먼저 항만으로 달려간 일본 장사치들이, 눈이 감긴 채 나무에 묶여 형식적인 재판을 받고 죽어간 사람들이, 바위 네댓 개 째민 거뜬히 부수고 갈 탱크의 궤도 자국이 발을 거쳐갔다. 우남을 다시 만난 것은 라디오 전파로만 전해 들던 그의 소식이 끊기고도 여러 달이 더 지난 뒤였다. 달을 편히 바라보기도 힘든 몸이 되었을 때, 우남은 발을 찾아왔다. 달빛에 비친 우남의 얼굴은 신문에서 종종 보아왔던 것보다 더 힘들고 늙어보였다. 우연인지, 반가움의 표시인지 낮에 한차례 소나기를 맞은 발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던 나무 뒤로 숨어 그를 지켜보았다. 우남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오래 전 두고 간 심장을 다시 찾으려는 듯 땅을 마구 파헤쳤다. 잘 맞춰진 양복과 깊게 패인 손이 생채기가 나며 진흙으로 얼룩져갔다. 더 이상 파내기를 멈춘 우남은 구덩이를 향해 머리를 집어넣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참을 목 놓아 울었다. 그를 위한 나라는 이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우남은 고개를 빼내고 진흙 위에 뭔가를 적어나갔다. 너무 어두워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맞춰 손바닥에 하나씩 따라 적었다. <Korea>.

| 초대작 |

역사 없는 민족 없고 당신 없는 역사가 없었다고

김 성 만

역사의 수레바퀴
한 바퀴 짊어지고 가셨군요

비 피린 내 나는 발자취
아물지 않는 상처가 덮어져
나가는 천지에
아직도 당신의 이름 석 자
부르지 못한
허공 속에 몸 돌다
빼어버리는
짧은 세 치 혀와 우둔한 머리가
당신 가실 길에 피지 못한
민주화 건국이념이
꽃이 피다만 자리에

정체성 없는 굴레 역사를
뒤집고 엮어 써
매일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간다고 한들
부모 없는 자식 같은
뿌리 없는 섞은 고목이

피폐한 사막에
봉우리 맺지 못해 몸서리치는 날

우리는 다시 당신
이름을 부르고 싶어요
역사 없는 민족은 없고
인물 없는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벌써 분단의 고통이
땅끝까지 저미어
뿌리 끝 목젖 메이는 이 땅
당신이 생각하신 조국에
분단의 고통을 넘어
다시 역사의 한 바퀴
굴리는 날

쓰고 싶군요
역사 없는 민족 없고
당신 없는 역사가
없었다고

| 초대작 |

거 목

최 병 규

봄은 좀처럼 발을 들이지 못하는 동절기
압제로 걸쳐진 옷의 나뭇잎은 초라한 형색이다
반도의 땅은 뿌리가 흔들리는 치아같이 시린 조국
고향을 잠시 떠난 발이랑마다 아지랑이 올라도
아른거리는 산하는 그리움보다 처량한 낮빛이다

내 잔뼈가 굵어간 향수 진한 마을로 향하는
봄은 아직 차가운 땅속에 거목은 동면중이다
영어의 세월만 무수한 체온으로 검게 누워있고
드러운 밤 그림자는 바다의 끝으로 나를 밀고 갔다

교훈이 열린 거목의 그늘 아래 개몽의 칼을 갈며
민의를 영역에다 자유의 씨앗을 흩뿌려 놓았다
동면중에도 좌절의 파고를 넘은 눈물겨운 투고의 변
거목 아래로 모여든 명족은 별채의 옹이처럼 야무지다

그 단단한 옹이에서 꿈틀꿈틀 일어서는 자유
봄은 찌그런진 사무라이 칼날을 뚫고 싹을 틔운다
어쩌랴, 떡잎을 거역하지는 못하는 태동의 계절
비로소 거목에 자유가 주렁주렁 열리는 국운을

날개의 남상

추 가 람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녘에 날개를 편다

빛과는 멀고 어둠이 가까운
도심과는 먼 곳에서
칙칙한 골방에서
자유의 비상을 삭힌다
젊지만 하얗진 머리로

그에게는 날개가 없다
가시덤불을 헤집느라
순백의 옷은 붉어졌다
자유는 발길을 돌린다
본질과 원천을 찾기 위해

올빼미가 날개를 펴고
도심을 향해 날아오른다
자유를 낚아채기 위해
그의 하얀 정수리에
온 신경을 곤두세운다

젊은이에게 날개가 생겼다
위아래로 차려입은
순백의 기사는
눈부시게 하얀 이정표 아래
다가올 정의를 기다리며

젊지만 하얗진 머리로
올빼미를 품에 안는다

여러분 마음속에
언제나 ‘자유’가 빛나기를...

2016 제 1회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 독립, 이승만 그리고 詩

-2016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 수상작품집

발행처 | 자유경제원

발행인 | 현진권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9, 신화빌딩 13층 (우편번호:04165)

전 화 | 02) 3774 - 5000

팩 스 | 02) 761 - 5058

© 자유경제원 2016

이 책의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자유경제원에 있습니다.

 자유경제원

자유는 꿈쩍이 아니다